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주격조사 ‘이라셔’에 대한 소고(小考)

백재원*

초록 본고는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조사 ‘이라셔’의 의미를 기술하고 통시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의 3가지에 주목하여 ‘이라셔’를 살핀다. 첫째, ‘이라셔’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이라셔’의 예를 진수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라셔’가 주격조사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다. 둘째, ‘이라셔’의 의미를 정밀히 기술하기 위해 ‘이라셔’가 사용된 문장을 맥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라셔’가 선행명사구의 자격성, 예외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셋째, ‘이라셔’의 통시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이 시기 차이를 두고 여러 번 간행된 문헌에 나타난 ‘이라셔’를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이라셔’가 활발히 사용된 시기를 파악하고 소멸 과정의 일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라셔’의 공시적인 특성과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아울러 파악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주격조사 ‘이라셔’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이라셔’, ‘이라서’, 주격조사, 중세한국어, 근대한국어, 자격성, 예외성, 羅西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어사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조사 ‘이라셔’의 의미를 기술하고 통시적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라셔’는 한국어사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자료에 문증되는 예가 많지 않으며 현대어에서도 ‘뒤라셔’ 정도에만 그 흔적이 남아 있는 소멸 직전의 단어다. 이처럼 ‘이라셔’는 문증되는 예가 적을 뿐더러, 현대에도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인 까닭에 이에 대한 면모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 그 의미는 물론이고 문법적인 지위조차 아직 명확히 논의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하지만 문법 요소의 발달과 소멸 과정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한국어의 옛 모습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사 ‘이라셔’를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사 자료에 문증되는 ‘이라셔’를 고찰하되, 다음의 3가지에 초점을 두어 ‘이라셔’의 특성을 논한다. 첫째, ‘이라셔’의 예를 전수 검토함으로써 ‘이라셔’의 분포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이라셔’가 주격조사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라셔’의 의미를 정밀히 기술하기 위해 ‘이라셔’가 사용된 문장을 맥락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현대어 사전에서는 ‘이라셔’의 후대형인 ‘이러셔’의 의미를 ‘강조’로 기술하고 있다. 본고의 고찰을 통해 ‘강조’의 구체적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일한 내용이 시기 차이를 두고 여러 번 간행된 문헌에 나타난 ‘이라셔’를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예컨대 『삼강행실도』 선조대 판본에서는 이전 판본에는 없었던 ‘이라셔’가 나타나기도 하며, 복각본 계통의 영조대 판본에서는 이전 판본의 ‘이라셔’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라셔’가 활발히 사용된 시기를 파악하고 소멸 과정의 일면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이라셔’의 공시적인 특성과 통시적인 변화 양상이 더욱 분명히 드러날 것이며, 주격조사에 대한 이해 또한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 연구 및 현대어 사전 기술 검토

2장에서는 여러 연구 논저에서 ‘이라셔’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확

인하고 현대어 사전의 '이라셔' 기술을 검토한다. '이라셔'는 연구자에 따라 부사격 조사,¹ 보조사,² 주격조사³ 및 주어 표시의⁴ 기능을 하는 것으로 다루어 왔다. 연구자마다 '이라셔'를 어떤 문법 범주에 귀속시키고 있는지는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은 '이라셔'와 주어와의 관련성이다. 이현희에서는 계사의 활용형으로 볼 수 있는 '-이셔'와 '-이라셔'의 관계를 고찰하며 중세국어 문헌에서 주어 명사구에 '-이셔'와 '-이라셔'가 통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⁵ 그리고 '이라셔'를 주격조사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도 이것이 주어 위치에 많이 쓰인다는 사실을 언급하거나,⁶ 주격으로만 쓰이므로 주격조사로 볼 수도 있다고⁷ 논하여 왔다. 즉 '이라셔'가 결합된 명사구가 주어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연구자들 간에 의견의 합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라셔'와 주어와의 연관성은 현대어 사전 기술에도 반영되어 있다. 현대어 사전에는 '이라셔'의 후대형인 '이라서'의 통사·의미적 특성이 기술되어 있다. 아래에 『표준국어대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의 예를 보인다. 각각의 예에서 (가)는 '이라셔', (나)는 '라셔'의 기술이다(밑줄은 필자).

(1) 『표준국어대사전』의 '이라셔'와 '라셔'의 기술

가. (에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히 가리켜 강조하며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
- 1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p. 347; 김승곤(2004), 『국어 토씨 어원과 용법』, 도서출판 역락, p. 121; 권재일(2021),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p. 250, 257.
 - 2 홍중선(2017), 『국어 문법사』, 아카넷, pp. 382-385.
 - 3 허웅(1975)는 '이라셔'를 부사격으로 보았으나 허웅(1989), 『16세기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pp. 71-72에서는 '이셔'와 '이라셔'를 주격조사로 파악하는 쪽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이현희(2005),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두 현안」,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p. 635에서 언급되었다.
 - 4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p. 109; 이현희(2005), pp. 633-636.
 - 5 이현희(2005), pp. 633-636.
 - 6 김승곤(2004), p. 38.
 - 7 홍중선(2017), p. 703.

조사. ‘감히’, ‘능히’의 뜻을 나타낸다. (예) 어떤 사람이라서 이 고통을 감당하겠는가.

나. (예스러운 표현으로) 특별히 가리켜 강조하며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감히’, ‘능히’의 뜻이 포함된다. (예) 날 찾을 이가 없건마는 그 뒤라서 날 찾나. 내일 일을 뒤라서 알리오.

(2) 『고려대한국어사전』의 ‘이라서’와 ‘라서’의 기술

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을 특별히 강조하여 가리키면서 그것이 일이나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주로 의문문에 쓰여, ‘감히’, ‘능히’ 따위의 뜻을 아울러 드러낸다. 주로 옛 말투로 쓰인다. (예) 어떤 사람이라서 그 고통을 견뎌 내겠는가.

나.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앞말을 특별히 강조하여 가리키면서 그것이 일이나 행동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주로 의문문에서 ‘뒤라서’의 꼴로 쓰여, ‘감히’, ‘능히’ 따위의 뜻을 아울러 드러낸다. 주로 옛 말투에 쓰인다. (예) 열었던 땅이 녹는 것을 볼 때, 뒤라서 새봄이 오지 않았다 하랴.

현대어 사전에는 ‘이라서’를 모두 주격으로 처리하고 있다. 예시되어 있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현대어에서는 ‘이라서’ 및 ‘라서’가 결합한 명사구가 문장에서 모두 주어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서’의 예로 제시된 문장에는 모두 ‘뒤라서’가 사용되어 있음이 눈에 띈다. ‘뒤라서’도 기원적으로는 의문대명사 ‘누’에 ‘이라서’가 결합한 것이므로 ‘이라서’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어에서는 ‘누’가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서는 이를 ‘뒤+라서’로 분석하였고, ‘라서’를 ‘이라서’의 음운론적 이형태로 처리하였다. 공식적으로는 합당한 처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이라서’의 의미를 강조로 기술하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특별히 가리켜 강조하는 것으로,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

는 앞말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마다 표현의 차이는 조금 있으나⁸ ‘감히’, ‘능히’의 뜻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사전에서는 ‘이라셔’를 ‘에스러운 표현’ 또는 ‘옛 말투’로 기술함으로써 사용역 정보도 제공하였다. 이는 ‘이라셔’가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임을 뜻한다. ‘이라셔’는 현대한국어에서는 소멸 직전의 단계에 놓여 있는 단어인 것이다.

선행 연구 성과와 사전의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이라셔’ 및 이의 후대형 ‘이라셔’가 주어와 관련되어 있고 그 의미는 앞말을 강조하는 것이며, 현대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표현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이라셔’를 고찰함으로써 ‘이라셔’의 분포와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로 한다.

3. ‘이라셔’의 분포와 의미 기능

3장에서는 자료의 구체적 검토를 통해 ‘이라셔’의 분포를 확인하고 의미 기능을 고찰한다. ‘이라셔’의 의미 기능을 논하는 데 있어서 본고가 전제하는 것은 ‘이라셔’가 가지는 표현적 효과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언중이 ‘NP이’를 사용하지 않고 ‘NP이라셔’를 사용한 것은 ‘NP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의미가 ‘NP이라셔’에는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우리는 옛날 말에 대한 직관이 없고 ‘이라셔’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포착하기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장에서는 예문의 구체적 분석을 통해 ‘이라셔’의 표현적 효과를 확인할 것이다.

8 (1가)에서는 “‘감히’, ‘능히’의 뜻을 나타낸다”, (1나)에서는 “‘감히’, ‘능히’의 뜻이 포함된다”, (2)에서는 “‘감히’, ‘능히’ 따위의 뜻을 아울러 드러낸다”고 하였다.

3.1. 분포

선행 연구와 현대어 사전 기술에서는 ‘이라셔’를 주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절에서는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이라셔’의 분포를 검토함으로써 ‘이라셔’가 주격조사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라셔’가 사용된 문장을 세기별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⁹

(3) 15세기

가. 跋提라셔 阿那律이 드려 닐오디(遂兩彼許跋提言)〈월인석보7:1b〉

나. 사르미 양지 곱고 머리 검고 나히 스물다스시라셔 百歲엿 사르미
 ㅁ르쳐 닐오디(譬如有人이 色美호고 髮黑호고 年이 二十五 | 라셔 指百歲
 人호야 言호디)〈법화경언해5:115〉

다. 가솔비건뎌 저믄 ㅁ흔 사르미 나히 처슴 二十五 | 라셔 百歲엿 아드
 리 머리 세오 ㄴ치 살찌 닐 ㄴ미게 ㅁ요디(譬如少壯人이 年始二十五
 | 라셔 示人百歲子 | 髮白而面皺호디)〈법화경언해5:120b〉

(4) 16세기

가. 제 아비라셔 저믄 주를 어엿비 너겨(父憐其少)〈속삼강행실도[원간
 본]烈女4a〉 cf. 제 아비라셔〈속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烈女4a〉

9 논문에서 이용한 문헌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도』 원간본(1481)은 영국국립도서관본, 선조대 중간본(1579)는 동경대 소장본, 영조대 중간본1(1726)은 규장각 소장본(170.951-Se63h)을 이용하였다. 영조대 중간본 중에서 북각본 계통의 판본(1730)은 弘文閣(1990)에서 영인한 규장각 소장본(奎12148)을 참조하였고 이를 ‘영조대 중간본2’로 표시한다. 『속삼강행실도』의 경우 원간본(1514)은 가람문고본(가람古貴170.951-Si62s)을, 선조대 중간본(1581)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 중인 미의회도서관본을, 영조대 중간본(1726)은 국립중앙도서관본(한古朝57-가739)을 이용하였다. 여러 판본에 ‘이라셔’가 동시에 문중되는 경우는 가장 이른 시기의 판본을 대표적으로 제시하였고, 다른 판본의 예는 해당 예에 참고로 함께 제시하였다. 판본에 따른 문헌 간 ‘이라셔’의 사용 양상 차이는 4장에서 상술한다. 『장수경언해』에 나타나는 ‘이라셔’는 (10)~(12), (16나)~(16아), [표 1] 등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4사)의 예만을 대표로 제시한다.

- 나. 瑞喬이라서 禮에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뵤대(馬氏書 禮無再醮之義 以告)<속삼강행실도[원간본]烈女7a> cf. 마시라셔<속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烈女7a>
- 다. 아비라셔 아드리 친연햏라 갈 제 술 햏 잔 머기고 ㅁ로디(父 | 醮子 애 命之日)<번역소학3:12b> cf. 아비<소학언해2:46a>
- 라. 아으과 아으누의라셔 햏과 ㅁ누의를 꾸지즈면 당 일비기오(弟臥 妹 羅西 兄果 弟乙 罵罵 則杖一百 五)<경민편언해[허엽 중간본]6b> cf. 아으과 아으누의라셔 (弟妹 |)<경민편언해[이후원 개간본]5a>
- 마. 有蘇氏라셔 姐己로 紉의게 드러늘<내훈序3b>
- 바. 딕월이라셔 모들 사릅의 손디 알외라(直月[此直月當是前朔之直月]報 會者)<여씨향약언해[존경각본]31a> cf. 딕월이라셔<화산본37b>, <일석본37b>
- 사. 그저기 큰 당재라셔 즉시 좃을 괴갈햏야(時大長者 卽令僮僕)<장수경언해30b>
- 아. 스스명이라셔 니르라 햏야늘(思明日 試言之)<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忠15a> cf. 스스명이리셔<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1]忠15a>
- 자. 위참정 텬위라셔 북녓호로 긋 더브러 가려 커늘(魏參政天祐 朝京 逼 以北行)<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忠25a> cf. 위참정 텬위라셔<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1]忠25a>
- 차. 제 아비라셔 일 홀어미 뵤 줄 어엿세 너겨(父哀其早寡)(仇音方逃野 本 國)<속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烈女16a> cf. 제 아비라셔<동국신속삼강행실도_속삼강열녀8b>
- 카. 뉘라셔 날 머그라 햏리 이시리<순천김씨언간73:15>

(5) 17세기

- 가. 그 안해라셔 어미게 삼가디 아니햏다 코 ㅁ리다(車達以其妻不謹於母 故棄之)<동국신속삼강행실도孝1:8b>
- 나. 예라셔 그 의를 감동햏야(倭人感其義)<동국신속삼강행실도孝1:30b>

- 다. 주근 지아비 병든 어미를 그 뉘라셔 봉양허령인고(亡夫病母其誰奉養)<동국신속삼강행실도_신속열녀1:42b>
- 라. 뉴영경이라셔 님허군을 위허여 광허군 봉세즈 주청을 아니허오 니<계축일기상2a>
- 마. 늙은 상궁을 가히라셔 만나보고 닐오디<계축일기상14a> cf. 가히라셔 <서궁일기10b>
- 바. 가히라셔 알고 드려가 올허며 달내여<계축일기상44b> cf. 가히라셔 <서궁일기33a>
- 사. 가히라셔 김상궁을 보고 놀나 피허라 애를 쓰디<계축일기상46b>
cf. 가히라셔 <서궁일기34b>
- 아. 식어버이를 머느리라셔 기결홀 나라히 잇느냐<계축일기하26a> cf. 머느리라셔 <서궁일기58b>
- 자. 뉘라셔 초상이나 구완허시논고<병자일기164>
- 차. 너를 병둥의 업슨 거슬 뉘라셔 아니 혼다 허고 견과허느냐<진성이 씨 이동표가 연간 13, 1687~1689년, 이동표(남편)가 미상(첩으로 추정)에게 보낸 편지>
- 카. 늙인들 뉘라셔 부러 알고 그리 가다 홀 니 이실고<나주임씨가 林滄溪先生墨寶國子內簡 연간 17, 1683~1686년, 임영(남동생)이 나주임씨(막내누나)에게 보낸 편지>
- 타. 남자 업슨 일의 뉘라셔 애써 허리가 이시리<숙명신한첩 연간 15, 1659~1671년, 인선왕후(어머니)가 숙명공주(딸)에게 보낸 편지>
- 파. 다만 니 셔방도 다른 디 나 잇고 뉘라셔 묘리 아라 구병을 홀고<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연간 9-013, 1697년, 송규렴(할아버지)이 은진송씨(손녀)에게 보낸 편지>

(6) 18세기

- 가. 왕이 … 무르디 뉘라셔 너를 글으쳐 상소허라 허더노(王愈怒 命李春富李穡 鞠誘者)<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1]忠32a>

나. 口尙乳臭 혼 거시 大事의 말 흘 므디 얼운을 犯接호여 제라셔 말을
 흐니<인어대방[규장각본]3:25b>

다. 여럭 되며 보살 되미 던디라셔 덩흐시며<전설인과곡_권선곡1b>

(7) 19세기

가. 뉘라셔 관씨를 천추에 의리잇고 올흔 사름이라 흐리오<1898년 6월
 4일 매일신문 49호>

나. 뉘라셔 충직흔 말을 아니 흘자 잇스리오<1898년 6월 13일 매일신
 문 56호>

(8) 필사본 판소리계 고전 소설

가. 그 놈의게 뉘라셔 버셔나리오<中山望月傳>

나. 이 산 퇴석사를 뉘라셔 유인할리<中山望月傳>

다. 월궁에 장성불스흔는 약을 네라셔 가져는야<兎繫山水錄>

라. 거 뉘라셔 놀 찾는고<兎繫山水錄>

마. 곤륜산 계슈늬게 달인 간을 뉘라셔 가져오리잇가<兎繫山水錄>

바. 뉘라셔 너을 썩리던나<朴興甫傳>

사. 브어기가 청상에 잇다가 의논을 듯고 제라셔 분을 이기지 못흐
 야<水宮繫主簿山中兎處士傳>

(3)~(8)의 예는 15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의 간본과 필사본, 신문기사, 연대를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운 필사본 소설 등에 사용된 ‘NP이라셔’이다. 15~17세기 자료의 경우 NP에 ‘跋提’, ‘제 아비’, ‘아으과 아으누의’ 등 다양한 명사구가 나타나나 후대로 갈수록 ‘뉘라셔’로 형태가 고정되어 사용된다. 지면 관계상 예를 일일이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만 (7), (8)과 같이 19세기 이후의 신문 자료 및 필사본 소설에서는 대부분 ‘뉘라셔’가 쓰이며 간혹 (8다), (8사)의 예처럼 NP에 대명사가 사용된 ‘네라셔’, ‘제라셔’ 등도 문중된다.

그리고 제시한 예에 사용된 ‘NP이라셔’는 문장에서 모두 주어로 사용

되어 있다. ‘NP이라서’가 주어임은 주어성 검증 기제로 활용되는 주격조사로의 대치, 관계화, 재귀사 결속 등을 해당 예에 적용해 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¹⁰ (4가)~(4다)의 예를 대상으로 각각 그 기제를 적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9) ‘NP이라서’의 주어 검증

가. 제 아버지라서 저믄 주를 어엿비 너겨<속삼강행실도烈女4a>

- ① 주격조사 대치: 제 아버지 (딸이) 저믄 주를 어엿비 너겨
- ② 관계화: (딸이) 저믄 주를 어엿비 너기는 제 아버지
- ③ 재귀사 결속: 제 아버지_i라서, 제_i 딸이 저믄 주를 어엿비 너겨

나. 瑞香이라서 禮예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빈대<속삼강행실도烈女7a>

- ① 주격조사 대치: 瑞香이 禮예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빈대
- ② 관계화: 禮예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빈 瑞香
- ③ 재귀사 결속: 瑞香_i이라서, 제_i 예에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빈대

다. 아버지라서 아드리 친연햏라 갈 제 술 햏 잔 머기고<번역소학3:12b>

- ① 주격조사 대치: 아버지 아드리 친연햏라 갈 제 술 햏 잔 머기고
- ② 관계화: 아드리 친연햏라 갈 제 술 햏 잔 머기는 아버지
- ③ 재귀사 결속: 아버지_i라서, 제_i 아드리 친연햏라 갈 제 술 햏 잔 머기고

10 해당 논항이 주어임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제에 대해서는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김민국(2020),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태학사 등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9)는 그 기제를 중세어에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현대인은 중세어에 대한 직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①~③의 문장이 적격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필자는 (9)에서 기제를 적용한 문장들이 16세기의 언어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문법적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우리말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판단이 옛날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가정한 것이다.

(9가①), (9나①), (9다①)은 ‘NP이라셔’를 ‘NP(이)’로 대체한 것이다. ‘이라셔’를 ‘이’로 대체하여도 문장의 문법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9가②), (9나②), (9다②)와 같이 ‘NP이라셔’를 관계화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9가③), (9나③), (9다③)은 재귀사 ‘제’를 주어 명사구 뒤에 추가한 것으로, 이때 재귀사 ‘제’는 선행하는 주어 ‘제 아버지’ ‘瑞香’,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결속된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해 ‘이라셔’가 결합한 명사구는 모두 문장에서 주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이라셔’와 주어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정확한 고찰이다. 그리고 ‘이라셔’가 주어 이외의 논항에 결합하는 경우는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라셔’를 주격조사로 칭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라셔’의 분포와 관련하여 『장수경언해』에 나타나는 ‘이라셔’를 따로 논할 필요가 있다. ‘이라셔’는 하나의 문헌에 두세 예 정도 문중되는 것이 보통이나 『장수경언해』에는 ‘이라셔’가 9번이나 사용되며, 서사구조를 갖춘 긴 이야기 안에 ‘이라셔’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장수경언해』에 사용된 ‘이라셔’ 역시 주어 명사구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앞서 우리가 관찰한 ‘이라셔’의 분포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장수경언해』에는 장면이 전환된 후 나타나는 주어 명사구에 ‘이라셔’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예가 흔히 관찰된다. 예컨대 ‘그저귀’ 다음에 나타나는 주어 명사구에 ‘이라셔’를 결합하거나, 한문 원문의 ‘(爾)時+NP’ 구성의 NP를 ‘NP이라셔’로 언해한 예가 종종 보인다. 이때 주어 명사구는 텍스트에 새롭게 주어지는 정보인 관계적 신정보일 수도 있고 이야기의 앞부분에 이미 나타난 정보인 관계적 구정보일 수도 있다. 『장수경언해』의 텍스트 구성의 분석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먼저 아래에 전도(顛倒) 여인의 이야기를 보인다. ‘이라셔’가 사용된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다소 길더라도 앞뒤 내용을 함께 제시한다.

(10) 가. 그 시에 흐 큰 가문 파라무니라 홀 사르밧 지비 이쇼되 ㄹ장 가스

- 머러 그과 ㄱ티 살리 업더니 훌연히 둥흔 병을 어덧거늘
 나. 의위니 보니 “모로미 산 사르미 눈즈식을 내어 약을 지서 머게사
 이 병이 도흐리라” 흐여늘
 다. 그저긔 큰 당재라셔 즉시 종을 귀갈흐야 길썸리로 가 든니며 소리
 를 띠이 불러 닐오디(時大長者 卽令僮僕 行於衢路 高聲唱言)〈장수경
 언해30b〉

바라문 가문의 사람이 큰 병을 앓자 의원이 산 사람의 눈자위를 발라
 내어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그러자 장자는 종을 시켜
 눈자위를 구해 오게 하였다. 텍스트의 발화자는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10다)에서 ‘그저긔’를 사용함으로써 장면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이야기에
 새로이 등장하는 주어 ‘큰 당자’에 ‘이라셔’를 결합하였다. ‘큰 당자’가 이
 야기에 처음 등장하는 신정보임을 고려하면 ‘큰 당자’에 초점을 두기 위해
 ‘이라셔’를 사용하였을 수 있다.

다음은 전도가 자신의 눈자위를 팔아서 장수경을 쓰고자 하였고 천제
 석(天帝釋) 49인이 와서 그 일을 대신한 후, 다시 전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
 이다.

- (11) 가. (天帝釋 49인이) “알퓌 주려던 두 눈즈식을 이제 우리 공을 다 므츠
 니 우리를 주어든 가져다가 파라마늬게 프라지라” 흐야시늘
 나. 던되라셔 즉시 살업 잘 흐는 전다래라 훌 사르믈 불러(尔時顛倒 卽
 命旃陀羅者) “네 나를 위흐야 내 눈즈식을 불아내여 이 마손아홉 사
 람씩 ㄱ티 눈화 받즈오라” 흐야늘
 다. 전다래라셔 의버비 내요려 흐거늘(時旃陀羅 依法欲剋)
 라. (天帝釋 49인이 전도의 마음에 감동하여 눈자위를 발라내지 않기로 하며
 전도에게 이야기함)
 마. 그저긔 란타룽왕이라셔(爾時難陀龍王等) 큰 위어미 히믈 써 가지

가짓 슈를 ㅎ야 던도의 경을 도죽ㅎ야 룡궁에 가져다가 공양ㅎ거
 늘<장수경언해31a-31b>

(11마)의 경우 ‘그저기’로 장면이 전환된 후 나타나는 새로운 인물인 ‘란타룡왕’에 ‘이라셔’가 결합되어 있다. 앞서 살핀 (10다)와 그 양상이 동일하다. 반면 (11나)와 (11다)의 ‘던도’와 ‘전다래’는 이미 이야기에 등장한 적이 있는 인물이며, 다른 예와 달리 ‘그저기’와 같은 화제 전환 표지 다음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런데 한문 원문에는 각각 ‘尙時顛倒’, ‘時旃陀羅’와 같이 ‘(尙)時’를 통해 장면이 바뀌고 있다. 장면 전환 후 나타나는 주어에 ‘이라셔’가 결합한 (10다), (11마)의 예가 있음을 참고하면 (11나), (11다)의 예 역시 이와 동계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의 신규(新舊) 유무에 상관없이 장면이 전환된 후 나타나는 주어 명사구에 ‘이라셔’가 통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파사닉왕과 정혜에 대한 이야기를 살핀다.

(12) 가. 파스릭왕이 니르샤디 “내 아릭 드로니 … ㅎ혀 구다미 이를 숭상
 ㅎ는 사르미면 정도를 만히 일ㅎ리라 ㅎ더라” ㅎ샤늘
 나. 덩헤라셔 글 지어 왕씨 슬오디(爾時定慧 以偈白王)
 다. 釋迦牟尼天人師 … 不信外道六師言
 라. 그저기 덩헤라셔 이 그를 다 니르고(爾時定慧 說是偈已)<장수경언해
 39b-40a>

(12라)에서는 ‘그저기’로 장면이 바뀐 후 나타나는 주어 명사구 ‘덩헤’에 ‘이라셔’가 결합하였다. (12나)의 경우 언해문에는 장면 전환 표지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한문 원문을 참조하면 ‘爾時’로 장면이 바뀌고 있다. (12나), (12라)의 예들도 장면 전환의 표지가 사용된 ‘(爾)時+NP’ 구성이 ‘(그저기) NP라셔’로 언해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의 이와 같은 설명은 일정한 환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라셔’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텍스트 구조 안에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 ‘NP이라셔’가 한문 원문의 ‘(爾)時+NP’와 관련되어 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 물론 언해문의 ‘NP이라셔’와 한문 원문의 ‘(爾)時+NP’ 구성이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언해문의 ‘NP이라셔’가 한문 원문의 ‘(爾)時+NP’ 구성에 항상 대응하는 것은 아니며, ‘(爾)時+NP’ 구성의 NP가 늘 ‘NP이라셔’로 언해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또 쇠가마피라셔(復有鐵鷄)’〈10a〉, ‘혹 구리가히라셔(或有銅狗)’〈10a〉에서는 ‘NP이라셔’가 한문 원문의 ‘有NP’에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爾時顛倒’는 ‘이라셔’가 쓰이지 않은 ‘그저지 던되’〈32a〉로 언해되었다. 또한 ‘마왕 파슈니라셔’(魔王波旬)〈42b〉처럼 한문 원문에 장면 전환의 표지가 없어도 ‘이라셔’가 사용된 예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들은 장면 전환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다. 본고의 설명을 모든 ‘이라셔’의 예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환경에 나타나는 ‘이라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이라셔’는 주어에, 특히 장면 전환 후 나타나는 주어에 결합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라셔’가 가지는 의미 기능에 대해 고찰한다.

3.2. 의미 기능

3.2.1. 자격성

이 절에서는 ‘이라셔’가 사용된 예를 대상으로 ‘이라셔’의 의미 기능을 분석한다.¹¹ ‘이라셔’가 나타내는 첫 번째 의미는 자격성이다. 즉 ‘NP이라

11 ‘NP이라셔’의 본격적인 의미 기술에 있어서 본고는 NP에 일반 명사 및 고유명사가 쓰인 것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으며, ‘뉘라셔’ 및 ‘제라셔’의 예는 제외하였다. 이들은 ‘이라셔’의 선행 명사가 ‘누’ 및 ‘제’와 같은 대명사로 고정되어 있고 수사의문문에 주로 사용된

셔’는 “(NP가 가진) 자격이나 지위로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NP이라셔’는 ‘NP로서’로 대체하여도 그 의미가 자연스럽다. 아래에 ‘이라셔’가 선행 명사구가 가진 자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예를 보인다.

- (13) 제 아버라셔 저믄 주를 어엿비 너겨 구퓌여 다르니 얼요려 햏야 햏마
보낼 저긔 許梅 브레 드러 주그니(父憐其少 逼之他適 臨遣 梅投水死)[許梅
溺水]〈속삼강행실도[원간본]烈女4a〉

(13)에서 ‘제 아버’는 딸이 남편을 일찍 잃은 것을 안타까워하여 ‘아버지로서’ 딸을 다시 혼인시키려 하였다. 아버지의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다. ‘NP이라셔’의 NP는 이처럼 어떠한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아래의 예(14)에서 관찰할 수 있듯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윤리적 규범 및 의식 절차를 행하거나, 자신에게 맡겨진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14) 가. 어버이 다르니를 얼요려 햏대 瑞喬이라셔 禮예 두 번 남진 어톨 리
업스니라 햏야 써 뵈대(父母欲令他適 馬氏 書禮 無再醮之義 以告)[馬氏
投井]〈속삼강행실도[원간본]烈女7a〉

나. 아버라셔 아드리 친연햏라 갈 제 술 햏 잔 머긔고 ㅁ로디(父 醮子
에 命之曰)〈번역소학3:12b〉

다. 아으과 아으누의라셔 햏과 문누의를 꾸지르면 당 일베키오(弟妹 兄
姊 罵罵 則杖一百)〈경민편언해[허엽 중간본]6b〉

라. 紉 | 有蘇氏를 톤대 [有蘇氏는 나랏 일후미라] 有蘇氏라셔 姐己로
紉의게 드러늘〈내훈序3b〉

마. 초햏르 나래 연괴 잇거든 전긔 삼일햏야 각별이 햏 나를 일덩이 햏

다는 점에서 ‘이라셔’의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야 덕월이라서 모들 사름의손디 알외라(朔日有故 則前期三日 別定一日 直月[此直月當是前朔之直月] 報會者)〈여씨향약언해[존경각본]31a〉
- 바. 여섯가지는 아히 어미라서 일체엿 제잡춘 과실 머그미오(六者 其母食一切諸雜冷菓)〈장수경언해44b〉
- 사. 형데 세 사름이 혼가지로 늘근 어미를 치더니 써곰 그 안해라서 어피게 삼가디 아니한다 코 브리다(兄弟三人同養老母 車達以其妻不謹於母 故棄之)[車達棄妻]〈동국신속삼강행실도孝1:8b〉
- 아. 내 아모리 파려하다 종 브리기조차 남이 기걸혀라 식어버이를 머느리라서 기걸홀 나라히 잇느냐(계축일기下26a)
- 자. 다 여티 되며 보살 되미 턴디라서 덩흐시며(진철인과곡_권선곡 1b)

제시한 예에 사용된 ‘NP이라서’의 NP는 어떠한 당위와 의무를 가지고 특정한 행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자격이나 지위에 놓여 있다. 예컨대 (14가)의 ‘瑞香’은 당시 사회가 요구하는 열녀의 속성을 갖춘 인물로서, 남편에 대한 정절을 끝까지 지키려 한다. (14나)의 ‘아비’는 아버지로서 친영(親迎)하러 가는 아들에게 술을 따르는 의식인 초례(醮禮)를 실시한다. (14다)의 ‘아오와 아오누의’는 아랫사람으로서 형과 만누이를 잘 따라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렇지 못할 경우 태형을 받는다.¹² (14라)의 ‘有蘇氏’는 침략받은 나라로서 침략국인 상(商)나라에 공물을 바쳐야 하여 이에 달기를 보낸다.

12 본고는 (14다)의 ‘NP이라서’를 자격성으로 분류하였지만 당시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를 예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선 사회는 형제자매의 관계에서 弟妹, 즉 아랫사람에게 여러 가지 덕목을 요구하였다. 정호훈(2012, pp. 98-99)에 따르면 형제자매와 관련된 처벌 조항의 대부분은 동생이 형과 언니에게 저지르는 잘못이며 이는 장유유서의 규범과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꾸짖는 행동을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는 사회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14다)에서 ‘아오와 아오누의’는 그러한 덕목을 갖추지 않고 도리어 순위 형제들을 꾸짖는 역할을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라서’가 사용된 것은 동생들이 가지는 예외적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4마)의 ‘딕월’은 사람들에게 모임을 알려야 하는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4바)의 ‘아히 어미’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잡다하고 차가운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아이의 수명이 짧아진다. (14사)의 ‘그 안해’는 시어머니에게 행동을 삼가야 하는 며느리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버림을 받는다. (14아)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일에 참견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진다. (14자)의 ‘툰디’는 여래와 보살됨을 정하는 역할을 한다.

‘NP이라셔’가 이처럼 자격성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NP에 아버지나 어머니, 아우와 아우누이, 직월, 아내 등과 같은 일반 명사가 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명사들은 특정한 자격이나 지위가 전제되어 있는 단어이므로 어떤 속성을 가지는지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아버지나 어머니라면 자식을 사랑할 것이며, 형제자매와 관련된 조목에 등장하는 제매(弟妹)라면 형과 누이에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것이다. 효자편에 나오는 아내라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14가), (14라)에는 NP 자리에 고유명사 ‘瑞香’과 ‘有蘇氏’가 사용되어 있다. 이들은 특정한 자격이 전제되어 있지 않은 고유명사이지만 맥락을 고려하면 자격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瑞香’은 열녀편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열녀편에는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실리며 서향 역시 그러한 속성을 지녔으므로 열녀편에 실릴 수 있었다. 즉 서향은 당시 조선이 요구하는 올바른 여성의 대표적 표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에 ‘이라셔’가 결합하여 자격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었다. ‘瑞香이라셔’를 “열녀로서” 정도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이다. (14라)의 ‘有蘇氏’는 상나라 주왕의 침략을 받은 나라이다. 당시 침략을 받은 나라는 침략국에게 여러 가지 공물을 바쳐야 하였다. ‘有蘇氏로서’를 “침략받은 나라의 지위로서”로 이해하고, 침략국에게 공물과 전리품을 바치기 위해 달기를 보낸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 역시 자격성을 갖추고 있었기에 ‘이라셔’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瑞香’과 ‘有蘇氏’는 고유명사이지만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었으

므로 '이라셔'의 결합이 가능하였다.

3.2.2. 예외성

두 번째로 살펴볼 '이라셔'는 앞서 살펴본 자격성의 의미 부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예로, 자격의 '이라셔'와는 다소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먼저 아래에 예를 보인다.

(15) 가. 가즐비건댄 사르미 양직 곱고 머리 검고 나히 스물다스시라셔 百歲옛 사르물 그르쳐 닐오디 이 내 아드리라 커든(譬如有人이 色美하고 髮黑하고 年이 二十五 | 라셔 指百歲人 ㅎ야 言호디 是我子 | 라 커든)〈범화경언해5:115〉

나. 가즐비건댄 저문 壯흔 사르미 나히 처섬 二十五 | 라셔 百歲옛 아드리 머리 세오 느치 살찌닐 느믹게 뵈오디 이들히 내 나호니라 커든(譬如少壯人이 年始二十五 | 라셔 示人百歲子 | 髮白而面皺호디 是等이 我所生이라 커든)〈범화경언해5:120b〉

다. 덩승우는 … 미양 이심주금을 넘ㅎ야 밥애 고기를 먹디 아니ㅎ니 예라셔 그 의를 감동ㅎ야 비를 그초고 낭식글 그초아 써 도라보내니(每念存歿食不御肉 倭人感其義 具舟楫備餼糧以歸)[承雨感倭]〈동국신속삼강행실도孝1:30b〉

라. 대왕 불평 시의 덩인홍 나이첨 다엿 사름이 상소ㅎ디 뉴영경이라셔 님히군을 위ㅎ여 광히군 봉세즈 주청을 아니ㅎ오니 슈상 뉴영경의 머리를 쥬쇼셔〈계축일기上2a〉

(15가)와 (15나)는 이현희(2005, pp. 635-636)에서 기형적 명사문에 '이라셔'가 결합한 것으로 언급한 예이다. 각각 [[사르미 양직 곱고 머리 검고 나히 스물다스]-이라셔], [[저문 壯흔 사르미 나히 처섬 二十五]- | 라셔]로 분석된다. (15가)는 “비유하건대 모습이 곱고 머리가 곱고 나이가 스물다섯인 사람이

백 살의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라고 하거든”, (15나)는 “나이가 스물다섯인 젊고 건장한 사람이 머리가 하얗게 세고 얼굴에 주름이 진 백 살의 아들을 남에게 보이면서 “이들이 내가 낳은 사람이다.”라고 하거든”의 의미를 나타낸다. (15다)는 효자 정승우가 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하여 밥과 고기를 먹지 않자 왜인이 그 뜻에 감동하였다는 것이며, (15라)는 유영경이 임해군을 위하여 광해군 봉세자 주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인홍과 이이첨이 상소한 내용이다.

(15)의 ‘NP이라셔’는 자격성의 ‘NP이라셔’와 다음의 면에서 서로 다르다. 첫째, (15)의 ‘NP이라셔’는 ‘NP로서’로의 대치가 다소 어색하다. (13), (14)의 ‘NP이라셔’는 ‘NP로서’로 대치하여도 그 의미가 자연스러운 반면 (15)는 ‘모습이 곱고 머리가 곱고 나이가 스물다섯인 사람으로서’, ‘예로서’, ‘유영경으로서’ 등과 같이 해당 문맥에서 ‘NP로서’로의 대치가 썩 자연스럽지 않다. 둘째, (13), (14)의 ‘NP이라셔’가 NP가 가지는 자격이나 지위가 두드러지는 경우였다면 (15)의 ‘NP이라셔’는 NP가 가지고 있는 속성, 특히 예외적 속성이 부각된다는 특징이 있다. NP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예외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라셔’가 사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15가)에서 ‘모습이 곱고 머리가 곱고 나이가 25살인 사람(아버지)’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을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상황은 다소 특이한 일이다. 아버지는 일반적으로 아들보다 나이가 많고 모습 또한 아들보다 젊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5나) 또한 마찬가지이다. (15다)의 경우 조선을 침략한 ‘예’(倭人)는 그 특성상 조선인의 호심에 감동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승우의 지극한 호심에는 왜인마저 감동을 받았다. (15라)에서 정인홍과 이이첨은 광해군 즉위를 지지하는 대북파였고, 유영경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소북파였다. 대북파에게는 소북파의 영수인 유영경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그래서 유영경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삼아 유영경을 탄핵하려 하였다. 즉 신하라면 당연히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

는 일에 찬성해야 하지만 유영경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이라셔’는 선행 명사구가 가지는 예외적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고, 이를 ‘예외성’이라는 이름으로 칭하고자 한다.¹³ 자격성의 ‘이라셔’가 선행 명사구의 자격이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외성의 ‘이라셔’는 선행 명사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예외적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라셔’가 나타내는 두 의미인 자격성과 예외성은 서로 상반되는 면이 있다. 전자는 주어가 어떠한 자격 및 신분을 가지고 그에 요구되는 적절한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주어는 자격이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속성을 가지고 있거나, 기대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 이처럼 ‘이라셔’가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현상은 현대한국어의 ‘NP로서’ 주어가 가지는 특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김민국은 의무 양태나 동적 양태에 사용되던 ‘NP로서’ 주어가 ‘신분이나 자격’의 의미가 약화되어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면서, 그 분포가 확대되어 ‘어떠한 입장에서’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음을 논하였다.¹⁴ 이를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에 적용하면 (13), (14)의 예들은 주어의 신분이나 자격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15)의 예는 주어의 속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라셔’가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¹⁵ 본고가 (15)의 예에 사용된 ‘이라셔’에 ‘예외성’이라는 표찰을 붙인 것은 선행 명사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 예외성을 부각시키기

13 예외성을 나타내는 ‘이라셔’는 그 예가 많지 않아 하나의 의미 표찰로 묶어 다루기에는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본고는 (15)의 예들에서 공통적으로 간취되는 의미를 중시하여 이를 하나의 부류에 포함하였다. 이 의미 표찰은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분석을 통해 다른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14 김민국(2013), 「부사격 조사 ‘로서’ 주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0, 한국어학회, pp. 130-132.

15 의미의 확대 과정이 통시적 자료가 보여 주는 양상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장된 의미라 할 수 있는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문이 이미 15세기 자료인 (15가), (15나)에 보이기 때문이다. 15세기에 이와 같은 의미 확대가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판단하기 어렵다.

위함이며 넓은 의미에서 주어의 속성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명칭은 비록 상반되나 의미적으로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3. 기타

우리는 지금까지 ‘이라서’가 자격성과 예외성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임을 논하였다. 그런데 ‘이라서’가 사용된 예 중에는 특정한 의미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반 주어 명사구와 거의 다르지 않은 예도 존재하는 것이다.

- (16) 가. 跋提라서 阿那律이드려 닐오디 우리 이제 안죽 出家 말오 지비 닐
 굽 히를 이셔 五欲을 只습 ㄹ장 편 後에사 出家 호저(遂兩彼許跋提言
 且當七年 受五欲樂 然後出家)<월인석보7:1b-2a>
- 나. 또 쇠가마괴라서 그 슬 흘 덕모사 머그며 혹 구리가히라서 그 모 들
 르너 흘며(復有鐵鷄아 啄食其肉 或有銅狗 齧齒其身)<장수경언해10a>
- 다. 그저기 큰 당재라서 즉시 종을 기갈 호야(時大長者 卽令僮僕)<장수경
 언해30b>
- 라. 던되라서 즉시 살업 잘 호는 전다래라 흘 사르 들 불리(尙時顛倒 卽
 命旃陀羅者)<장수경언해31a>
- 마. 전다래라서 의버비 내요려 호거늘(時旃陀羅 依法欲劑)<장수경언해
 31a>
- 바. 그저기 란타룡왕이라서 큰 위어미 히 들 써(爾時難陀龍王等 以大威
 力)<장수경언해31b>
- 사. 덩헤라서 글 지어 왕씨 슬오디(爾時定慧 以偈白王)<장수경언해39b>
- 아. 그저기 덩헤라서 이 그를 다 니르고(爾時定慧 說是偈已)<장수경언해
 40a>
- 자. 늙은 상궁을 가히라서 만나보고 닐오디 대군보피 조히 잇는가(계

축일기上14a)

차. 등환이 … 원망하는 일을 가히라셔 알고 드러가 울히며 달내여 ㄱ
장 은근히 말하고(계축일기上44b)

카. 가히라셔 김상궁을 보고 놀나 피하라 애를 쓰되(계축일기上46b)

제시한 예들은 자격성이나 예외성의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예이다. 본고는 이를 기타 부류에 포함하였다. 그런데 이 예들도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설명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16가)에서 발제(跋提)는 7년을 놀다가 출가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중생이 하루라도 빨리 출가하는 것을 권장하므로 발제의 이와 같은 행동은 예외적인 것에 속한다. 발제가 가지는 예외성을 강조하기 위해 ‘跋提라셔’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6자)~(16카)는 『계축일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히’에 ‘이라셔’가 결합한 예이다. 앞서 살펴본 (15라)의 ‘뉴영경이라셔’와 같이 『계축일기』의 다른 부분에서 선행 명사구가 예외성을 가질 때에 ‘이라셔’가 결합한 예가 존재하고, ‘가히’가 부정적 속성을 가지는 인물로 묘사됨을 고려하면 이 또한 예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맥만으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귀속시킬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 본고는 예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16)의 예들을 기타 부류로 귀속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라셔’가 자격성, 예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논하였고 어떤 특정한 의미로 귀속하기 어려운 ‘NP이라셔’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이라셔’의 의미 기능은 현대어 주격조사의 용법에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의 연구를 통해 ‘이라셔’가 주격조사가 가지는 여러 의미 중 어떤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문헌 간 비교를 통해 ‘이라셔’가 가지는 통시적 양상을 고찰한다.

4. 문헌 간 비교를 통하여 고찰한 ‘이라셔’의 통시성

4장에서는 시기 차를 두고 여러 번 간행된 문헌 간의 비교를 통해 ‘이라셔’의 통시적 사용 양상과 소멸 과정을 살핀다. 본고는 ‘이라셔’의 통시적 사용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자료를 두 부류로 나누어 논한다.

첫 번째는 판본에 따라 ‘이라셔’에 대응하는 구결토가 달라진 경우다. 이는 『경민편언해』의 중간본과 개간본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두 판본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라셔’가 17세기에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밝힐 것이다.

두 번째는 판본에 따라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라셔’가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삼강행실도』 및 『속삼강행실도』의 이본, 『장수경언해』의 이본 등은 ‘이라셔’의 시기별 사용 양상과 소멸 과정을 잘 보여 주는 자료다. 원간본의 ‘이라셔’는 후대 판본에서 사라지기도 하며, 원간본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후대 판본에서 ‘이라셔’가 새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판본에 따른 ‘이라셔’의 존재 여부가 언어 변화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4.1. ‘이라셔’에 대응하는 구결토의 차이

먼저 ‘이라셔’에 대응하는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토가 판본 간 서로 달리 나타나는 경우를 『경민편언해』의 중간본과 개간본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언해문의 경우 판본 간 차이가 크지 않다. (17가)와 (17나)를 비교해 보면 허엽 중간본의 ‘믄’이 이후원 개간본에서는 ‘뫓’으로, ‘당 일빅’이 한자 ‘杖一百’으로 표기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의 경우 ‘이라셔’에 대응하는 현토가 허엽 중간본에서는 ‘羅西’로, 이후원 개간본에서는 ‘|’로 나타난다.

(17) 가. 아으과 아으누의라셔 형과 문누의를 꾸지즈면 당 일빅기오<경민편 언해[허엽 중간본]6b>

나. 아으과 아으누의라셔 형과 문누의를 꾸지즈면 杖 一百 호고<경민편 언해[이후원 개간본]5a>

(18) 가. 弟臥 妹羅西 兄果 娣乙 髡罵 則杖一百 五<경민편언해[허엽 중간본]5b>

나. 弟妹 | 兄娣를 髡罵 則杖一百 호고<경민편언해[이후원 개간본]4a>

『경민편언해』는 현재 원간본이 전하지 않으므로 1579년 중간본의 현토가 원간본의 그것과 동일한지, 어떠한 변개가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허엽 중간본은 1658년 이후원에 의해 다시 改刊된다. 이후원은 새롭게 ‘校證翻譯’을 하였으며 그 결과 개간본은 중간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 또한 변화를 겪었다.¹⁶ 허엽 중간본인 (18가)의 ‘弟臥 妹羅西’는 (18나)의 개간본에서 ‘弟妹 |’로 바뀌어 나타난다. 접속조사 ‘臥’가 생략되고 주격조사는 ‘羅西’에서 ‘|’로 바뀐 것이다.

이후원 개간본에서 ‘羅西’를 ‘|’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정호훈의 논문에서 밝힌 이후원 개간본의 특성이 참고된다.¹⁷ 정호훈은 원간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허 도서관 소장인 『경민편언해』를 허엽 중간본, 이후원 개간본의 구결과 비교하였다. 그리고 이후원 간본의 구결이 한문 문장에 대한 이해를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성이 있

16 두 이본에 나타난 구결의 구체적 변화 양상은 여찬영(2005), 「『경민편(언해)』 동경교대본과 규장각본 연구: 한문 원문 및 구결의 차이」,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pp. 79-102에서 상세히 논하였다. 여찬영(2005)에서는 쓰쿠바대본과 규장각본의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두 이본 간의 구결은 90여 군데 이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제는 (18)의 예처럼 ‘(是)羅西’가 ‘|’로, 즉 ‘이(다)’류가 조사로 교체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예는 제시한 부분 외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17 정호훈(2020), 「16세기 『경민편(警民編)』 초기 간본의 검토: 상허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사례」, 『한국사상사학』 66, 한국사상사학회, p. 76.

음을 밝혔다. 이를 참고하면 이후원 개간본에서는 한문의 ‘弟妹’가 주어 명사구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에 ‘이라셔’가 아닌 주격표지인 ‘ㅣ’로 현토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후원 개간본의 ‘弟妹ㅣ’가 언해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弟妹ㅣ’는 (17나)에서 알 수 있듯 언해문에서 ‘아오와 아오누의라셔’로 번역되었다. 언해자는 구결토 ‘ㅣ’를 언해문에서 ‘이라셔’로 표현한 것이다. 그 결과 중간본과 개간본은 한문 원문에 달린 구결토는 다르지만 언해문은 동일한 모습이 되었다. 이는 마치 개간본의 언해문 번역에 참여한 사람이 중간본의 언해를 참고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경민편언해』에서 ‘이라셔’는 한 예만이 문증되는데 해당 부분이 (17)의 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개간본의 번역은 이후원이 독자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원은 원간본을 보지 못한 채 사본만을 얻어 보았고 그 사본에는 언해가 없어서 이후원이 스스로 번역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중간본 내지 원간본과는 관련이 없으며 언해와 구결 또한 전혀 다르다(안병희 1992, p. 301, 305). 즉 이후원이 기존한 경민편의 현토 및 언해문을 보았다고 가정하기 어렵다.

두 이본의 언해문이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연으로밖에 볼 수 없다. 본고는 이를 17세기에도 여전히 ‘이라셔’가 어느 정도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자격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될 수 있었음을 알려 주는 예로 보고자 한다. ‘이라셔’가 사용될 수 있는 특별한 맥락이 있었고 (17나)의 예는 그 맥락에 적절히 들어맞았기 때문에 언해자는 ‘이라셔’를 사용하여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우연하게도 중간본과 언해 양상이 유사하게 되었다.

4.2.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라셔’의 차이

4.2.1. 원간본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사라진 경우

다음으로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라셔’가 판본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난 경우를 살핀다. 첫 번째로 검토할 자료는 원간본에는 있었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사라진 경우다. 아래에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예를 보이고, 동일 내용이 수록된 『내훈』 및 『어제내훈』, 『여사서언해』의 예 또한 함께 보인다.

(19) 가. 아비라셔 아드리 친영하라 갈 제 술 흘 잔 머기고 ㄹ로디(父 | 醮子에 命之曰)〈번역소학3:12b〉¹⁸

나. 아비 아들을 醮[친영홀 제 술 먹겨 보내는 레되라]홀 제 命하야 글오디(父 | 醮子에 命之曰)〈소학언해2:46a〉

다. 아비 아드를 醮하고 [醮는 아들 婚姻홀 제 술 이바들시라] 命하야 날오디(父 | 醮子하고 命之曰호디)〈내훈[선조판]1:83a-b〉

라. 아비 아드를 醮홀 제 [醮는 아들 婚姻홀 제 술 먹겨 보내는 레되라] 命하야 글오디(父 | 醮子에 命之曰)〈어제내훈1:67b〉

마. 父 | 아들을 醮홀 제 命하야 글오디(父 | 醮子에 命之曰)〈여사서언해3:66a〉

18 『번역소학』만이 ‘NP₂이라셔 [NP₁이 VP₁] VP₂’ 구문으로 나타나며 다른 문헌은 ‘NP₁이 NP₂를 VP(醮하-)’ 구문으로 나타난다. 『번역소학』의 해당 부분이 보이는 번역 양상은 정호훈(2016), 「규장각 소장 『小學』의 系統과 특징: 조선에서의 간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157-190에서도 주목하였다. 정호훈(2016, pp. 174-175)은 이 풀이는 소학집설에 나타나는 ‘醮’의 의미(‘酌而無酬酢, 曰醮. 盖醮子以親迎也’[小學集說 권2, 32ㄴ])(술을 따라주되 주고받지 않는 것을 醮라고 한다. 아들에게 초하여 친영한다)가 번역문에 녹아 들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번역소학』만이 ‘醮’의 의미를 협주로 제시하지 않고 본문 내용에 녹여 표현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 언해 양상이 달라진 것이다.

(19)는 『번역소학』에만 ‘이라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라셔’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한문 원문의 ‘父’는 (19가)의 『번역소학』에만 ‘아비라셔’로 언해되었고, 동일한 내용이 실린 다른 문헌에는 ‘아비’ 또는 ‘父 | ’로 표현되었다. 『번역소학』의 특징 중 하나가 의역임을 고려하면 ‘이라셔’는 의역적 표현 또는 자연스러운 표현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후대에 번역된 여러 문헌에서, 특히 직역을 표방하는 문헌에서 ‘이라셔’가 전혀 쓰이지 않음이 이를 방증한다.

원간본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는 사라진 예는 『속삼강행실도』와 『장수경언해』에서도 확인된다.

(20) 가. 제 아비라셔 저른 주를 어엿비 너겨 구튀여 다르니 얼요려 햏야(父 憐其少 逼之他適 臨遣)[許梅溺水 本朝]<속삼강행실도[원간본]烈女4a>

나. 제 아비라셔 저른 주를 어엿씨 너겨 구튀여 다르니 얼요려 햏야<속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烈女4a>

다. 제 아비 그 저른 줄을 어엿씨 너겨 구튀여 다른 디 가라 햏야<속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烈女4a>

(21) 가. 瑞香이라셔 禮예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뵈대(馬氏書 禮無再醮之義 以告)[馬氏投井 本國]<속삼강행실도[원간본]烈女7a>

나. 마시라셔 례예 두 번 남진 어롤 리 업스니라 햏야 씨 뵈대<속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烈女7a>

다. 마시셔 례예 두 번 초례흔의 업스니라 햏야 씨 고흔대<속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烈女7a>

(20가)와 (20나)는 원간본과 선조대 중간본에서 문증되는 ‘이라셔’의 예이다. 이는 영조대 판본에서는 변화를 겪는다. (20다)에서는 ‘다르니 얼요려 햏야’가 ‘다른 디 가라 햏야’로 바뀌는 등 언해문의 표현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제 아비라셔’ 또한 ‘제 아비’로 바뀌었다. 영조대 판본에서 ‘이라셔’

가 사라진 이유는 18세기에는 ‘이라셔’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더이상 사용되지 않는 요소를 언해문에서 제거한 것이다. 18세기에 ‘이라셔’가 문증되지 않는 현상은 후술할 (22)~(24)의 예에서도 관찰된다.

(21)가는 원간본에 ‘瑞香이라셔’가 쓰인 예이다. 선조대 중간본 (21나)에서도 ‘이라셔’가 그대로 유지된 형태인 ‘마시라셔’로 나타난다. (21다)의 영조대 중간본에는 ‘마시셔’로 나타나는데 이는 ‘라’가 누락된 오각으로 보인다.¹⁹ ‘이라셔’가 온전하게 문증되는 예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라셔’가 영조대까지 사용된 예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일단은 (20)의 예와 함께 언급해 두는 것에 그친다.

『장수경언해』의 경우 16세기 전반에 간행된 목판본에만 ‘이라셔’가 문증되고 후대 판본에서는 모두 사라졌다. 지면 관계상 해당 어절만을 [표 1]

[표 1] 16세기 목판본 『장수경언해』에 문증되는 ‘이라셔’와 후대 판본의 비교

16세기 목판본	『불설동다장수경언해』(필사본, 1898년), 『장수경』(목판본, 1911년), 『장수멸죄다란니경』(필사본, 20세기)
쇠가마괴라셔<10a>	무쇠 가마괴와<03b>, 무쇠 가마귀가<04a>, 무쇠로 된 가(까)마귀들리<04a>
구리가하라셔<10a>	구리로 혼 기<03b>, 구리로 된 기<04a>, 구리로 된 개<04a>
큰 당재라셔<30b>	장직<09b>, 장직<11a>, 장자<11a>
던되라셔<31a>	전도여인이<10b>, 전도녀인이<12a>, 전도(여)인이<12a>
전다래라셔<31a>	장인이<10b>, 단타라 <12a>, (난타라)<12a>
란타룡왕이라셔<31b>	난타룡왕이<11a>, 난타용왕 등이<12b>, 난타용왕 등이<12b>
정해라셔<39b>	정해<14a>, 정해<16a>, 정해<16a>
마왕 파슈니라셔<42b>	마왕파슈니<15b>, 마왕이<18a>, 마왕[이]<18a>
아히 어미라셔<44b>	산모가<16b>, 그 어미<19a>, 그 어미<19b>

19 후대인들이 선대의 언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여 ‘馬氏書’의 ‘書’를 한글 ‘셔’로 표기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書’의 의미를 고유어가 아닌 한자음 ‘셔’로 표현하는 변역은 기이하므로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에 정리하여 간략히 보인다.²⁰

후대 판본의 간행 시기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져 있다. 이 시기는 ‘뉘라셔’만이 주로 사용되었고 ‘이라셔’가 단독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후대 판본에 ‘이라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언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2.2. 원간본에는 없었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새로이 나타난 경우

다음으로 검토할 자료는 원간본에는 ‘이라셔’가 없었으나 후대 판본에 새롭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자료들의 공통점은 ‘이라셔’가 새로이 등장하는 판본은 모두 선조대 중간본이라는 것이다. 아래에 『삼강행실도』의 예를 보인다.

(22) 가. 建陽驛사 드리에 브텃더니 魏參政 天祐 | 北녀마로 굿 더브러 가려 커닐(寓建陽之驛橋 戊子 魏參政天祐 朝京 逼以北行)[榜得茹蔬 宋]〈삼강행실도[원간본]忠25a〉

나. 건양역 드리에 브텃더니 위참정 텃위라셔 북녀호로 굿 더브러 가려 커닐(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忠25a)

다. 건양역 드리에 브터더니 위참정 텃위라셔 북역호로 굿 더브러 가려 커닐(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1]忠25a)

라. 오랑개 참정 벼슬호는 위턴위 방득을 잡아 꺾박호여 제 나라호로 드려 가려 호거닐(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2]忠25a)

라. 원나라 참정 벼슬호는 위턴위 방득을 잡아 꺾박호여 제 나라호로 드려 가려 호거닐(寓建陽之驛橋 福建行省參政魏天祐 逼以北行)〈오륜행실도2:60b〉

20 목판본 및 후대 판본의 자료는 경북대학교 출판부 편(2000)을 이용하였다.

원간본의 ‘魏參政 天祐 | ’는 (22나)의 선조판에서 ‘위참정 턴위라셔’로 바뀌었다.²¹ 선조대 중간본의 언해자는 언해 과정에서 ‘이라셔’를 추가한 것이다. 영조대 자료에서는 판본에 따라 ‘이라셔’가 존재하는 예와 그렇지 않은 예가 공존한다. (22다)의 중간본의 경우 ‘이라셔’가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영조대에 ‘이라셔’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다)의 문장이 (22가), (22나)의 번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는 단지 이전 시기의 번역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판본이기 때문에 ‘이라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조대 이후 ‘이라셔’의 사용이 줄어드는 양상은 (22다)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 (22다)은 번역 양상이 이전 시기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복각본 계통의 영조대 판본이다. 새로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라셔’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셔’는 당시 언중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언해문에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22라)의 『오륜행실도』에서도 ‘이라셔’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 역시 18세기 말에는 ‘이라셔’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²²

아래의 『속삼강행실도』 또한 (22)의 예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준다.

(23) 가. 남지니 죽거늘 제 아버지 일 홀어미 도원 줄 어엿비 너겨 남진 얼유려
 려 亨거늘(夫死 父哀其早寡 欲奪志)[仇音方逃野 本國]〈속삼강행실도
 [원간본]烈女16a〉

나. 남지니 죽거늘 제 아버지라셔 일 홀어미 된 줄 어엿씨 너겨 남진 얼
 리려 커늘〈속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烈女16a〉

21 이상훈(2018),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학적·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81-82에서는 선조판이 성종판의 표기 방식만을 바꾼 판본이 아님을 재확인하였다. (22나)의 예도 이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오륜행실도』는 영조판을 참고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이상훈(2018), p. 79]. (22라)의 언해 양상이 (22다)보다는 (22다)과 유사함을 고려하면 『오륜행실도』는 복각본 계통의 중간본을 참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남지니 죽거늘 제 아비라셔 일 홀어미 된 줄 어엿세 너겨 남진 열
리려 커늘<동국신속삼강행실도_속삼강열녀8b>

라. 남진이 죽거늘 제 아비 일즉 홀어미 된 줄을 어엿세 너겨 남진 열
요려 허거늘<속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烈女16a>

원간본의 ‘제 아비’는 선조대 중간본 (23나)에서 ‘제 아비라셔’로 표현되었다. 구음방(仇音方)에 대한 사적은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이하 『동국신속』)에도 실려 있다. (23다)가 그 예로, 선조대 중간본과 마찬가지로 ‘이라셔’가 사용되어 있다. 『동국신속』의 언해자가 선조대 중간본을 참고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언해자가 임의로 추가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본고는 이영경(2011)을 따라 전자의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이영경(2011, p. 112)은 선조대 중간본의 오표기가 『동국신속』에 그대로 수용되었음을 근거로 『속삼강행실도』의 사적을 가져온 동국속삼강행실도 부분은 선조대 중간본 『속삼강행실도』를 참고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23나), (23다)의 유사성의 배경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3라)의 영조대 판본에서는 ‘이라셔’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 역시 사용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조대 중간본 자료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원간본에서는 아예 언해되지 않았던 주어 명사구가 선조대 중간본에서 ‘NP이라셔’로 나타나는 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24) 가. 張興이 널오디 나는 唐스 忠臣이라 … 흔 말 니르고 죽가지라 니르
라 하니 널오디(興曰 興唐之忠臣 … 願一言而死 思明曰 試言之 興曰)[張
興鋸死_唐]<삼강행실도[원간본]忠15a>

나. 당흥이 널오디 나는 당 통신이라 … 흔 말 니르고 죽거지라 흔대
스스명이라셔 니르라 ㅎ야늘 널오디<삼강행실도[선조대 중간본]忠
15a>

- 다. 당흥이 널오디 나는 … 흥 말 니르고 죽거지라 흥대 스스명이리서
 니르라 흥야늘 널오디<삼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1]忠15a>
- 다. 흥이 곁오디 나는 당나라 튜신이라 엇지 도적의게 항복흥리오<삼
 강행실도[영조대 중간본2]忠15a>
- 라. 흥이 곁오디 나는 … 원컨대 흥 말만 흥고 죽으리라 스명이 곁오디
 무슴 말고(興曰 興唐之忠臣 固無降理 今數刻之人耳 願一言而死 思明曰
 云何)<오륜행실도2:35b>

(24가)의 원간본에서는 한문 ‘思明曰 試言之’ 구절에서 ‘思明曰’을 언해하지 않고 ‘試言之’만을 ‘니르라’로 언해하였다. 이에 반해 (24나)의 선조판에서는 ‘思明曰’을 ‘스스명이라셔’로 충실하게 번역함으로써 ‘니르라’의 발화자가 史思明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였다. 선조판의 언해자는 주어를 새로이 번역함과 동시에 이에 ‘이라셔’를 결합한 것이다. (22다)의 영조판에서는 ‘라셔’가 ‘리서’로 나타나는데 이는 오각으로 보인다. (22다)에서는 ‘今數刻之人耳 願一言而死 思明曰 試言之 興曰’ 부분이 통째로 언해되지 않았으므로 ‘思明曰’에 대응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이것이 복각본 계통의 영조대 중간본임을 고려하면 ‘思明曰’이 언해되었더라도 ‘이라셔’가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동일 내용은 (22라)의 『오륜행실도』에서도 보이는데, 이에서는 주어가 ‘스명이’로 나타나며 ‘이라셔’는 사용되지 않았다. 후대의 자료일수록 ‘이라셔’가 사용되지 않는 양상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간본과 후대 판본에 나타나는 ‘이라셔’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료를 두 부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19)~(24)에서 사용된 ‘NP이라셔’ 및 ‘NP이’의 예를 문헌명과 사용된 어형에 따라 정리하여 보이면 [표 2], [표 3]과 같다.²³

23 편의상 『삼강행실도』는 『삼강』으로, 『속삼강행실도』는 『속삼강』,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표 2] 원간본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사라진 경우

문헌명	어형[예(19)]	문헌명	어형[예(20)]	어형[예(21)]
『번역소학』	아버라셔	『속삼강』 원간본	제 아버라셔	瑞齋이라셔
『소학언해』	아버	『속삼강』 중간본 (선조대)	제 아버라셔	마시라셔
『내훈』	아버	『속삼강』 중간본 (영조대)	제 아버	마시셔
『어제내훈』	아버			
『여사서언해』	父			

[표 3] 원간본에는 없었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새로이 나타난 경우

문헌명	어형[예(22)]	문헌명	어형[예(23)]	문헌명	어형[예(24)]
『삼강』 원간본	魏參政 天祐 	『속삼강』 원간본	제 아버	『삼강』 원간본	(해당 부분 언 해되지 않음)
『삼강』 중간본 (선조대)	위참정 턴위 라셔	『속삼강』 중간본 (선조대)	제 아버라셔	『삼강』 중간본 (선조대)	스스명이라셔
『동국신속』	(해당 사적 없음)	『동국신 속』	제 아버라셔	『동국신속』	(해당 사적 없 음)
『삼강』 중간본 (영조대1)	위참정 턴위 라셔	『속삼강』 중간본 (영조대)	제 아버	『삼강』 중간본 (영조대1)	스스명이라셔
『삼강』 중간본 (영조대2)	위턴위			『삼강』 중간본 (영조대2)	(해당 부분 언 해되지 않음)
『오륜행실도』	위턴위			『오륜행실도』	스명이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이라셔'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언해』의 예를 제외하면 '이라셔'가 공통적으로 문증되는 시기는 선조대이다. 특히 [표 3]에서 알 수 있듯 선조대 자료에서는 원간본에

는 『동국신속』으로 칭한다. '이라셔'가 사용된 어형은 음영을 두어 표시한다.

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라셔’가 새로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4), (5)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라셔’가 문증되는 문헌이 대부분 16~17세기에 간행된 문헌, 특히 16세기의 70~80년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선조대 중간본에 ‘이라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사용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6세기 후반부는 ‘이라셔’가 활발히 사용되는 시기였던 것이다. 『소학언해』의 경우 선조대 간행된 자료이지만 직역을 추구하는 문헌이었으므로 ‘이라셔’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이라셔’가 구어적 성격이 강한 표현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둘째, 영조대 판본에서는 ‘이라셔’가 사용되기도 하고 사용되지 않기도 하는 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이를 ‘이라셔’가 18세기에는 거의 소멸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이라셔’가 유지되어 있는 판본도 있었으나 이는 선대 판본의 번역 양상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는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18세기에 ‘이라셔’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새로 복각한 판본에서는 ‘이라셔’가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 ‘이라셔’의 현실적인 사용 양상을 반영하는 것은 후자의 자료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본 간에 표현이 바뀌지 않는 경우를 언급해 둔다. 아래는 『인어대방』의 여러 이본에 ‘제라셔’가 나타나는 예이다.

(25) 가. 口尙乳臭흔 거시 大事의 말홀 믋딴 얼운을 犯接호여 제라셔 넘 더 말을 하니 이런 판탕흔 인식 어이 잇스올고<인어대방[조선간본, 1790]3:25b>

나. 口尙乳臭흔 거시 大事의 말홀 믋딴 어룬을 犯接호여 제라셔 내뻬 말을 하니 그런 板蕩흔 人事 | 어딴 잇스올고<인어대방[筑波大本, 1751 추정]4:19b>

다. 口尙乳臭흔 거시 大事에 말을 홀 믋딴 어룬을 犯接호여 제라셔 내썩 말을 하니 그런 판탕흔 人事 어딴 잇스올고<인어대방[아스톤본, 1841]4:20a>

라. 口尙乳臭흔 거시 大事에 말을 흘 므디 절문 사람이 어륜을 犯接하여
제나셔 내셔 말을 하니 그런 판탕홀 人事 어디 잇스올고<인어대방
 [京都大本, 1859]2:10b>

‘제라셔’는 재귀대명사 ‘저’에 ‘이라셔’가 결합한 것이다. 앞서 살핀 자료들과는 달리 모든 이본에 ‘제라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자료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라셔’ 옆에 병기되어 있는 가타가나이다. (25가), (25나)의 경우 ‘제라셔’에 대응하는 일본어가 존재하지 않지만 (25다), (25라)의 경우 각각 ‘ヲノレカ’, ‘ソノミガ’로 ‘제라셔’와 대응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ヲノレカ’는 재귀대명사 ‘己’(れ)에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이며 ‘ソノミガ’는 “그 몸이”, “제 몸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其の身’과 주격조사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대역 부분을 작성한 역관은 조선어의 ‘제라셔’를 대명사와 주격조사 결합형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를 가나로 표기하였던 것이다. (25다), (25라)의 자료에서만 ‘제라셔’의 대역 부분이 존재하는 이유 및 ‘제라셔’가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 등이 앞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한국어사 자료에 나타나는 ‘이라셔’의 예를 전수 검토함으로써 ‘이라셔’의 의미 기능과 통시적 양상을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이라셔’가 주어 명사구에 결합하는 주격조사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장면 전환 후 나타나는 주어에 결합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3장에서는 ‘이라셔’의 의미를 자격성과 예외성, 기타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라셔’는 선행 명사구가 가지는 자격이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선행 명사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예외적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었다. 어느 쪽에도 분류하기

어려운 예들도 존재하였으며 본고는 이를 기타 부류에 귀속하였다. 4장에서는 문헌 간 판본 비교를 통하여 ‘이라셔’의 통시적 양상을 관찰하였다. 『경민편언해』의 중간본과 개간본의 비교를 통해 ‘이라셔’에 대응하는 구절토가 달라진 경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언해문에 나타나는 ‘이라셔’가 판본에 따라 차이가 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자료를 두 부류, 즉 원간본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사라진 경우, 원간본에는 없었던 ‘이라셔’가 후대 판본에서 새로이 나타난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특히 후자의 자료를 근거로 ‘이라셔’가 활발히 사용된 시기를 16세기의 70~80년대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삼강행실도』 및 『속삼강행실도』의 영조대 판본에 ‘이라셔’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라셔’가 18세기에는 거의 소멸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고의 연구는 아직 깊이 있게 고찰되지 않은 조사 ‘이라셔’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문법사 연구, 특히 조사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북대학교 출판부 편(2000), 『장수경언해』, 경북대학교 출판부.
 권재일(2021), 『한국어 문법사』, 박이정.
 김민국(2020),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태학사.
 김민국(2013), 「부사격 조사 ‘로서’ 주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60, 한국어학회, pp. 111-142.
 김승곤(2004), 『국어 토씨 어원과 용법』, 도서출판 역락.
 김주필(2013), 「조선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과 일본어 교재로서의 『隣語大方』」, 『어문연구』 41-3, pp. 37-66.
 남권희·이은규·이문규(2021), 『장수경언해연구』, 학자원.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안병희(1978), 「二倫行實圖·警敏編 解題」, 『東洋學叢書』 6,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여찬영(2005), 「『경민편(언해)』 동경교대본과 규장각본 연구: 한문 원문 및 구결의 차이」,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pp. 79-102.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 이상훈(2019), 「선조대 중간본 『續三綱行實圖』의 국어학적 연구」, 『국어학』 89, 국어학회, pp. 177-202.
- 이상훈(2018),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학적·국어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훈(2017), 「續三綱行實의 異版本에 대한 연구」, 『국어사연구』 24, 국어사학회, pp. 111-137.
- 이영경(2011),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언해의 성격에 대하여」, 『진단학보』 112, 진단학회, pp. 103-125.
- 이은규(2007), 「『경민편(언해)』 이본의 번역 내용 비교: 번역자 시점을 기준으로」, 『언어과학연구』 43, 언어과학회, pp. 23-47.
- 이현희(2021), 「국어 문법사의 시각에서 현대 국어 문법 들여다보기: 몇 어형을 중심으로」, 624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 기조발표 발표문.
- 이현희(2005),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두 현안」,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 정호훈(2020), 「16세기 『경민편(警民編)』 초기 간본의 검토: 상허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사례」, 『한국사상사학』 66, 한국사상사학회, pp. 55-90.
- 정호훈(2016), 「규장각 소장 『小學』의 系統과 특징: 조선에서의 간본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7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pp. 157-190.
- 정호훈(2012), 『경민편(교화와 형벌의 이중주로 보는 조선 사회)』, 아카넷.
- 정호훈(2006), 「16·7세기 『警民篇』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pp. 119-158.
- 최응환(2001), 「〈장수경〉 언해의 구문 연구」, 『언어과학연구』 20, 언어과학회, pp. 393-416.
- 허웅(1989), 『16세기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 허웅(1975), 『우리옛말본』, 샘 문화사.
- 홍중선(2017), 『국어 문법사』, 아카넷.

ABSTRACT

A Study on the Nominative Case Marker ‘irasyeo’ in Korean Historical Literature

Baek, Chaewon*

This study intends to describe the meaning of the nominative case marker ‘irasyeo’ and examine its diachronic aspects by examining all examples of ‘irasyeo’ in Korean historical literature. This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irasyeo’ by paying attention to the following three ways. First, the distribution of ‘irasyeo’ was confirmed by examining all examples of ‘irasyeo’. Through this, it could be clearly revealed that ‘irasyeo’ was a nominative case marker. Second, sentences featuring ‘irasyeo’ were carefully examined, including the context behind its used, and the text structure was also considered.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at ‘irasyeo’ had the functions of qualification and exceptionality. Third, examination was carried out on cases of ‘irasyeo’ that appear in documents that were published several times with the same content at different times. Through this process,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period during which ‘irasyeo’ was actively used, and to observe an aspect of its extinction process. Through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irasyeo’ that had not been revealed until now were revealed more clearly through the understanding the synchronic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acteristics and diachronic change patterns of ‘irasyeo’.

Keywords ‘Irasyeo’, ‘Iraseo’, Nominative Case Marker, Middle Korean, Modern Korean, Qualification, Exceptionality

